

순천만국가정원, 겨울에도 볼거리·즐길거리 풍성

야간 운영시간 1시간 단축
오후 9시에서 8시로 변경
주요 동선에 겨울꽃 식재
30일 500대 드론라이트쇼
“겨울정원의 매력 선사할 것”

순천만국가정원이 올 겨울 새로운 매력으로 관람객을 맞이하기 위해 새단장한다.

순천시는 동절기 일몰시간이 빨라짐에 따라 관람객 안전관리 등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국가정원 운영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8시로(입장마감 오후 7시) 한 시간 앞당겨 겨울 시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준비해 관람의 즐거움은 한층 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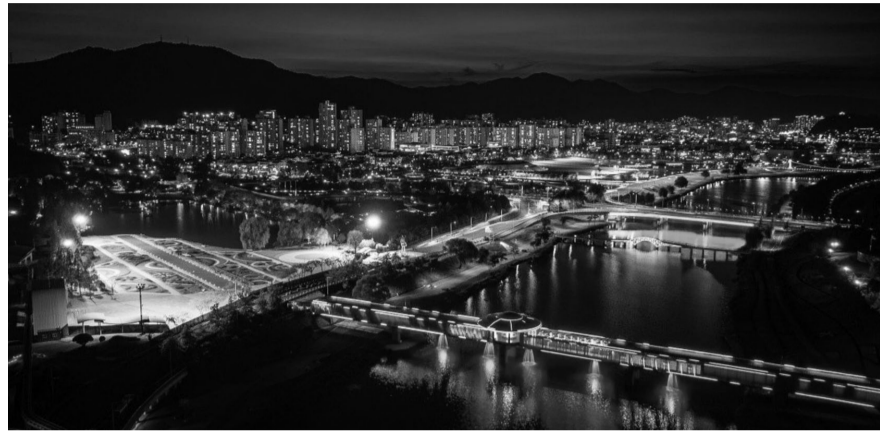
먼저 겨울꽃으로 가득한 겨울왕국을 선보이기 위해 주요동선에 비올라, 크리스마스즈, 포인세티아, 꽃망배추 등 10종의 다양한 꽃들을 식재해 겨울에도

꽃으로 가득한 정원과 환상적인 포토 스팟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스카이크루브 순천만역 및 어린이동물원 입구 등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곳곳에 연출해 연말 분위기를 한껏 더할 예정이다.

테라피가든에서는 나만의 과일청 만들기, 단팃티 찾기 등 겨울티(TEA) 테라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연말을 맞아 시크릿어벤처의 랜드마크 ‘마더트리’를 크리스마스 트리로 새롭게 연출하고 굿즈 증정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된다.

이 외에도 첫눈 오는 날 국가정원을 방문한 관람객에게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SNS 이벤트와 한파에도 정원을 찾는 관람객을 위해 선착순으로 핫팩을 나누어 주는 등 따뜻한 배려가 돋보이는 이벤트도 준비돼 있다.

특히 오는 30일에는 오후 5시부터 6시 20분까지 ‘하늘에서도 빛나는 정원’이라는 주제로 500여 대의 드론이 정원을 하늘을 별빛처럼 수놓는 ‘드론라이트쇼’가 펼쳐진다. 스페이스허브 일원에서 열리는



순천시는 동절기 일몰시간이 빨라짐에 따라 관람객 안전관리 등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국가정원 운영시간을 오후 9시에서 8시로(입장마감 7시) 한 시간 앞당길 계획이다. 순천만국가정원 야경. 순천시 제공

드론라이트쇼는 드론쇼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도 진행되며, 테라피 가든 팝업 부스에서 운영하는 힐링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정원은 사시사철 색다른 매력을 품고 있고, 겨울정원 또한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

며 “겨울정원의 매력이 궁금하다면 이번 겨울 순천만국가정원을 꼭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순천만국가정원은 매월 마지막 월요일 정기휴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 휴장기간 없이 연중 운영될 예정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고흥군, 귀농귀촌 유치 홍보활동 부산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고흥군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제14회 부산 유기농·친환경·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박람회는 (주)메세코리아가 주최했으며, 고흥군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1:1 상담을 통해 생생한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고흥군은 현재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두 지역 살아보기 고흥스테이’ 지원사업을 안내하며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100세 이상 장수지역 전국 1위,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예비타당성 면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우수지역 선정으로 160억원의 기금 확보 등 주요 현안을 알리며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고흥군은 귀농 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과 도시민 유치 활동을 통해 최근 5년간 귀농인 수 전남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다양한 지원 정책 제공과 함께 귀농귀촌인들이 당초 목적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배치해 차별화된 사후관리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흥=심정우 기자

한국 차 산업 교류 방안 모색 보성군-필립 저글러 AVPA 회장

보성군은 지난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필립 저글러’ AVPA 회장이 보성군을 방문해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차 산업 교류 및 차 산지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모색했다.

전국 최대 차 주산지로 알려진 보성군에 방문한 필립 저글러 AVPA 회장은 김철우 보성군수를 만나 한국의 차를 세계 각국의 티 마스터와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해외 차(茶) 관련 기업이나 티(Tea) 마스터들이 대한민국의 대표 차 산지를 관광하고, 보성 차 문화를 바로 알고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2025년 프랑스 식품박람회에 보성군과 보성군 자매결연 도시인 하동군이 함께 참여해 한국의 차를 소개하고, 프랑스의 차와 보성의 차가 ‘AVPA 세계 차 콘테스트’와 ‘보성 세계 차 품평대회’에서 국내 차 전문가와 세계 티 마스터들의 전문적인 품질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필립 저글러’는 생산자와 소비자로 구성된 차 등 농산물 가치평가 기관인 ‘AVPA’의 회장이다.

‘AVPA’는 세계 각국의 농산물 전문가와 소비자를 연결해 지원하는 비영리단체인데, 2005년에 설립돼 50개국 1만여명의 차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 있으며, 현재 5개 대륙에서 1000여명의 티 마스터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대한민국 차를 대표하는 보성차가 프랑스 AVPA와 함께 협력해 한국 전통 차 농업의 가치를 살리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며 “차 산업 교육 및 차 문화 교류를 통해 프랑스에서도 보성 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광양시, 일반형 장애인일자리 모집 내달 5~6일 방문 신청·접수

광양시가 내년 일반형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일반형 일자리는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하나로 광양시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직접 채용한다. 채용된 이들은 행정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배치하여 사무 및 복지서비스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채용인원은 41명이다. 근무 방식은 두 가지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전일제(29명)와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12명)로 나뉜다.

모집 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이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신청 기간 내 광양시청 노인장애인과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의 개별적 특성 및 욕구 파악을 위해 담당자와의 초기상담이 필요하기에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한다.

1차 서류심사가 끝난 뒤에는 2차 면접이 진행된다. 적격심사, 기본직무 수행 능력 등의 심사가 끝나면 12월 1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모집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지원에 필요한 서류 등이 광양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란 및 광양시 구인구직플랫폼 ‘굿잡광양’에 안내되어 있다.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광양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재능키움팀(061-797-3107)으로 문의하면 친절할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민숙 노인장애인과장은 “광양시는 사회적 차원의 장애인식 개선과 직업을 통한 개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장애인 대상 공공 일자리사업 중 ‘일반형’은 참여자뿐만 아니라 배치기관에서도 만족도 및 필요성이 높은 유형에 속한다. 장애인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가 지난 22일 새마을 조리장에서 광양시여성단체협의회가 2024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해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여성단체협의회, ‘2024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광양시가 지난 22일 새마을 조리장에서 광양시여성단체협의회가 2024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해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광양시는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 이번 행사를 지원했으며, 광양시여성단체협의회에 속한 14개 여성단체 회원 30여 명은 이날 절인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며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껏 김치를 담가

따뜻한 사랑의 나눔을 함께 했다.

김장김치 220포기는 지역 내 아동들이 학기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18개소와 소외 계층, 홀몸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됐다.

황호순광양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사랑이 담긴 김치를 맛있게 드실 이웃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

이 훈훈해진다. 앞으로도 나눔 실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 함께 참여한 박정금 여성가족과장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을 위해 고생해주신 광양시여성단체협의회 및 여성단체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이번 행사가 더욱 풍성하게 마무리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여수시, 묘도 LNG 터미널 출자금 100억 편성

매년 배당금·지방세 등 기대

정부가 추진 중인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사업’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여수시가 특수목적법인(SPC) 출자금 10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묘도 LNG 터미널’은 총사업비 1조 4362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정부 펀드 20%, 특수목적법인(SPC) 20%, PF 대출 60%가 투입될 예정이다. 특수목적법인(SPC) 출자금 중 8%를 여수시가 100억원, 전남도가 130억원씩

각각 투자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난해 7월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진계획이 확정돼 올해 3월 첫 출범했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총 3조 원 규모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방식이다.

특히 지자체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해 민간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지

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인구소멸 대응에도 기여한다는 정부 역점사업이다.

그동안 기재부에서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관련 정부 부처와 정책 금융기관, 민간(PF 대주단)과 여러 차례 사업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모펀드 운용사의 투자심의를 거쳐 선정했으며,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도 면제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사업은 정부가 주관하고 전남도와 여수시가 함께 출자한 만큼 지자체의 성공 출자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출자금 회수에 대한 안전장치도 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